

30만원에 그림 한점 걸어볼까



29일 광주시 동구 무등갤러리가 개최한 ‘무등아트페스티벌’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갤러리는 10월12일까지 작가 135명 작품 400여점을 30만원에 판매한다.

무등갤러리 내달 12일까지 ‘무등아트페스티벌’

‘우리 집에 그림 한점 걸어볼까.’ 평소 미술품에 관심이 많지만 만만치 않은 가격과 어떤 작가 작품을 사야할지 몰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찾아왔다. 무등갤러리에서 모든 작품을 30만원에 파는 소품 균일가 판매전 ‘제3회 무등아트페스티벌’이 29일부터 10월12일까지 열린다. ‘추억의 7080 충장축제’ 행사의 하나로, 청년작가부터 원로까지 135명이 참여해 회화·사진·조각 등 여러 장르 400여점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작가, 장르를 불문하고 대부분 30만원에 판매한다. 29일 오후 방문한 무등갤러리는 작품 설치와 명제표 부착 마무리작업이 한창이었다. 작품은 무릎 높이부터 머리 위까지 사방에 설치돼 있었다. 정식 오프닝은 이날 오후 5시였지만 좋은 작품을 선점하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

작가 135명 작품 400점

30만원 균일가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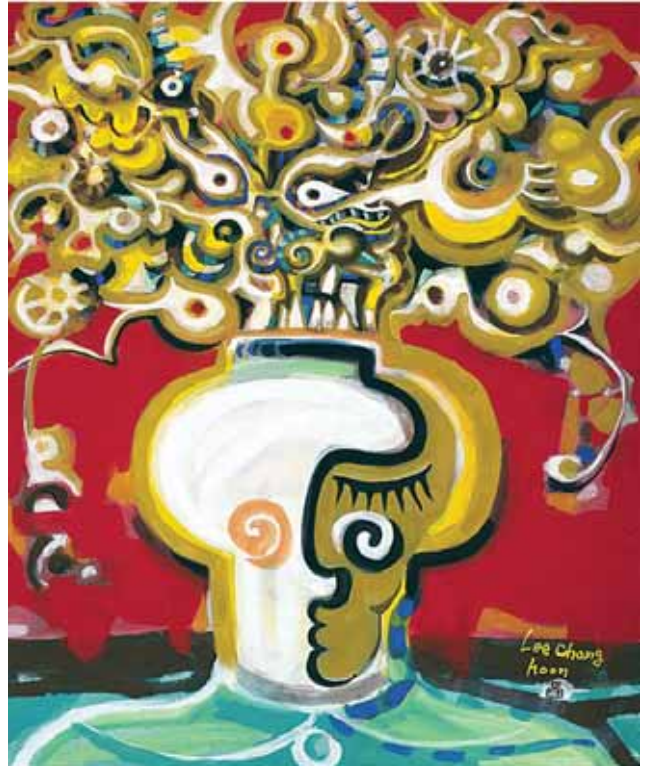
어지머 갤러리 내부는 분주한 분위기였다. 수백점이 한꺼번에 걸리기 때문에 방문객들은 한걸음 한걸음 천천히 옮겨다 보며 꼼꼼하게 살펴보는 모습이었다. 사고 싶은 작가 작품을 미리 생각하고 온 사람들은 명제표에 붙은 빨간 스티커(판매완료 표시)를 보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빨간 바탕에 알록달록 꽃을 그린 최영훈 화백의 ‘장미’, 정답게 누워있는 가족을 황소가 바라보고 황영선 화백의 드로잉 작품 ‘가족이야기’ 등이다. 김영화, 김해성, 류재웅, 문명호, 이구용, 전현숙, 최

재영, 한희원 등 인기있는 중견 작가 작품도 벌써 팔렸다.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이 일찍부터 다녀간 결과다. 갤러리에서 만난 김종숙(여·51)씨는 “많은 작품을 한꺼번에 보고 구입도 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열두에 두고 있었던 작가 그림은 벌써 팔려 다른 좋은 작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작품 판매는 현장에서 바로 이뤄진다. 구입을 원하는 작품은 갤러리 중앙에 위치한 판매대에 말하면 된다. 현금으로 결제한 후 즉시 포장해 가져갈 수 있다. 판매금은 작가에게 100% 돌아간다. 마음에 드는 작가 그림이 팔렸더라도 아쉬워하지 않아도 된다. 한명당 2~3 작품을 출품했기 때문에 조금만 발걸음을 분주히 돌리면 원하는 작가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236-2520. /김홍희기자 kimyh@kwangju.co.kr

‘빛고을 명물’...‘새벽’ 정기展

내달 9일까지 은암미술관

시대정신을 반영한 예술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룹 ‘새벽’이 은암미술관에서 30일부터 10월9일까지 정기전 ‘빛고을 명물’을 연다. 전시 개막식은 10월1일 오후 6시에 진행된다. ‘새벽’은 지난 1991년 창립한 이래 매년 정기전과 특별전을 열고 있으며, 현재도 창립멤버(서병욱·한희원·황순철·정용규·채종기)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창립멤버를 비롯해 강동화, 강요상, 고근호, 김광길, 김정하 등 회원 35명이 참여한다. 올해는 특히 젊은 신입회원들을 영입해 참신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조선대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박용수 작가는 ‘意境-散調(의경-산수)’를 선보인다. 무등산 등 남도풍경을 수목과 분홍, 초록 등 채색을 통해 형상화하며 밝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느껴진다. 이창훈 작가가 출품한 한국화 ‘도깨비가 나오는 향아리’는 전통적 색채에 현대 미술을 접목했다. 사람 얼굴을 형상화한 화분과 만개한 꽃에서 도깨비 모습이 보인다. 새벽은 1995년 ‘새벽 그 옴트는 빛’이란 주제로 지리산 스케치 전시와 워크숍을 가졌으며 1998년 일본 도쿄 메구로 미술관에서 국제현대미술교류전에 참여했다. 2002년 ‘남북의 길’전에서는 목포부터 임진각까지 도보하며 작업한 작품을 광주와 서



이창훈 작 ‘도깨비가 나오는 향아리’

울에서 선보이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문의 062-231-5299. /김홍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극장 화제의 다큐멘터리 2편 개봉

10월 2일 ‘내셔널갤러리’ 3일 ‘다음 침공은 어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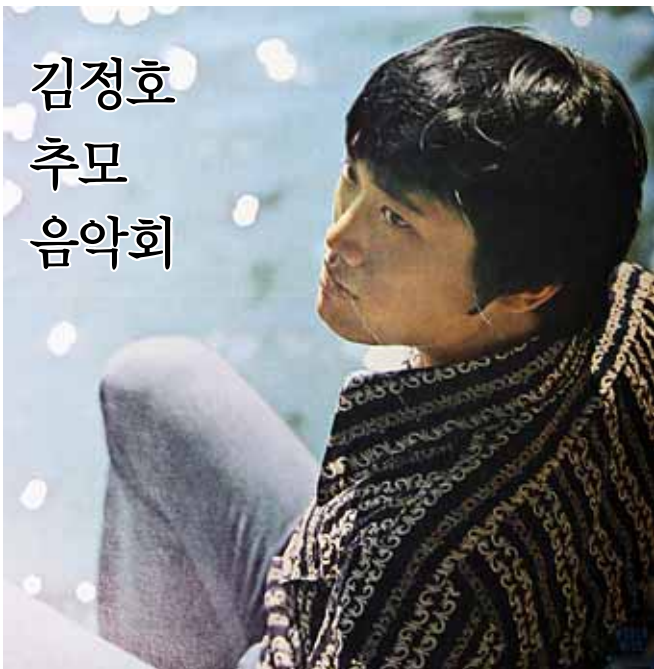
화제를 모으고 있는 다큐멘터리 두 편이 3차례씩 광주극장에서 한정 상영된다. 수많은 명작들을 소장하고 있는 영국 내셔널 갤러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프레드릭 와이즈먼의 다큐멘터리 ‘내셔널 갤러리’(사진)가 영화팬들을 찾아온다. 10월2일 오후 2시 50분, 5일 오후 7시10분, 3회 상영일 추후 공지. 1824년 설립된 내셔널 갤러리는 13세기~19세기까지 서양 미술 걸작 약 2300점의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다. 영화는 갤러리 안에서 펼쳐지는 상세한 일들이 내용으로 화려한 전시와 더불어 작품 복원, 갤러리 운영, 교육, 직원들의 이야기 등을 담아내고 있다. 또 레오나르도 다 빈치, 빈센트 반 고흐, 파블로 피카소 등의 그림을 만난다. 유머가 담긴 비판적 다큐멘터리 작품으로 유명한 마이클 무어의 ‘다음 침공은 어디’는 10월 3일 오후 7시10분, 4일 오후

2시50분(3회 상영 추후 공지) 상영된다. 미국 국방부의 SOS를 받은 마이클 무어가 다른 나라들의 장점만을 빼앗기로 선언하고 전 세계 침공을 시작한다. 일년에 8주 유급휴가와 13번 월급이 보장된 이탈리아, 프렌치 프라이대신 미술쟁 3스타급 학교급식이 나오는 프랑스 등 9개국을 침공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사회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들여다 본다. cafe.naver.com/cinemagwangju. 문의 062-222-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중외공원 ‘아트피크닉’

내일 예술여행·콘서트

중외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흥겨운 예술축제 ‘아트피크닉’이 10월1일 오후 3시부터 ‘가을 소풍’을 주제로 펼쳐진다.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은 ‘아트버스 타고 떠나는 예술여행’이다. 광주를 누비는 아트버스 안에서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성혜림 작가가 참여한다. 가을콘서트는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무대로 꾸며지며 ‘달빛영화관’ 상영작은 ‘어거스트 러쉬’이다. ‘가을우체국’에서는 손편지를 보낼 수 있는 우체통이 마련되고, ‘가을 책방’, ‘아트마켓’도 마련된다. 곳곳에서는 낙하산 원단으로 만든 ‘루바니’ 가방, 비엔날레 입장권 등을 받을 수 있는 보물찾기도 열리며 식초음료, 핫도그 등 먹거리를 선보인다. 문의 062-366-1895. /김홍희기자 kimyh@



김정호 추모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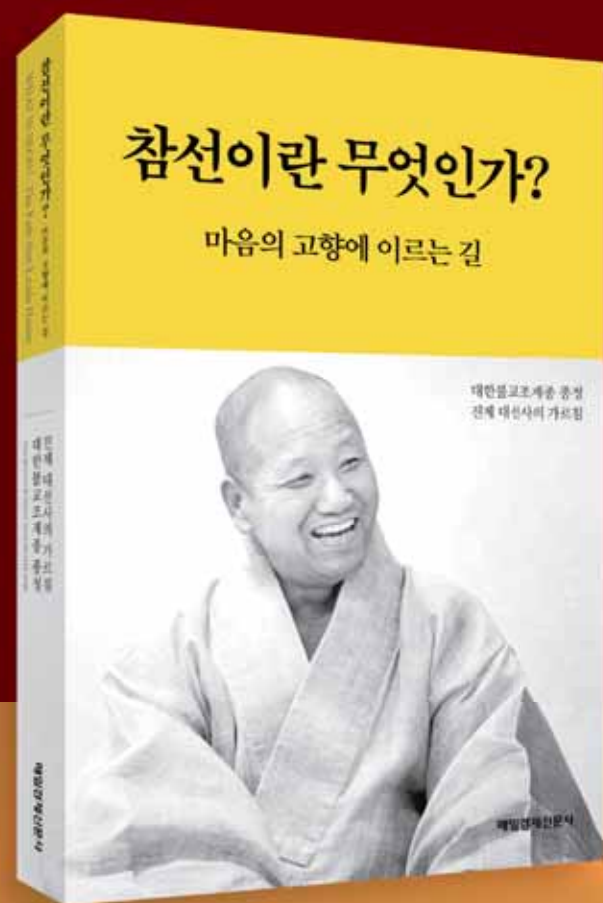
2~3일 수창초교...김수희·최진희 출연

‘하얀나비’, ‘이름 모를 소녀’ 등으로 사랑받았던 가수 고(故) 김정호(1952~1985)를 추모하는 음악회가 열린다. (사)대한가수협회 광주시지회가 김정호 모교인 수창초등학교 특설무대에서 10월 2~3일 ‘제2회 김정호 추모음악회’를 개최한다. 2일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열린 음악회 ‘추억’이 진행되며 김정호 음악세계를 살펴본다. 오후 7시에는 뮤지컬 ‘하얀 나비’가 무대에 오르고 오후 8시부터는 ‘김정호가요제’ 본선이 열려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튿날인 3일에는 오후 2시 ‘감성’을 주제로 열린 음악회가 공연되고 오후 6시에는 공식 기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후 7시부터는 김수희, 백영규, 임창제, 조승구, 최진희 등 유명가수가 참여하는 광주MBC ‘가요베스트’가 열린다. 그밖에 국악콘서트, ‘추억의 DJ와 함께’, 합창 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마련된다. 특별이벤트로 ‘하얀나비 머리띠’를 착용한 관람객에게는 ‘2016 광주비엔날레’ 입장권을 선착순 15명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문의 062-451-779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대한불교조계종 중정 진제대선사가 한글과 영문으로 전하는 삶의 지혜와 참된 행복의 메시지

“사람들이 빈한하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기 때문이요, 말이 여위면 털이 길어진다. 나고 날 적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한다면, 모든 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를 밝히는 참선수행을 합시다.”

“이 책은 오늘 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에게 삶의 소중한 양식을 부담 없이 얻을 양서라 아니 할 수 없다.” - 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진제대선사는 항곡대선사로부터 부처님법을 인가받아 경허-해월-운봉-항곡대선사로 전해 내려온 정통법맥을 이음, 석가여래부촉법 제79대법손, 현재)대한불교조계종 중정,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지음 | 진제 대선사 가격 | 16,000원 팔공총림 동화사 | 053)980-7903 해운정사 | 051)746-2256